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6 Number 2 • 2 2008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ACT News

4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2008년 새해 벽두에 젊은 청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으로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과학선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바로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입니다. 한해 두 차례씩 1월과 8월 첫째 주에 출발하는데 벌써 4차를 마쳤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에는 북미에 흩어져 있는 12개 교회, 17학교에서 4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온누리교회 유학생 선교회와 얼마인 온누리교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번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신선함과 순수한 변화를 봅니다. 창조주를 확인하고,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진화론에서 벗어난 것을 넘어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고, 세상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해하고, 성경이 손 안에 있는 것이 감격이고, 앞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



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기대도 갖추고... 간증만 읽어도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간증문을 읽어 주세요)

버스에서의 비디오 시청, 저녁에 주제강연, 경유지 강연 등 순서마다 진지함과, 사고의 틀이 진화론에서 벗어나 사실인 성경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탐사여행 동안 끊이지 않는 질문들은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세상에서의 지식과 성경의 믿음과의 갈등을 이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담고 있었는지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학생 탐사여행이 계속해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온누리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빛교회 창조과학 탐사여행

한 해의 끝이면 어김 없이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마지막 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샌디에고 한빛교회의 창조과학 탐사여행이며, 다른 하나가 인랜드 순복음 교회에서의 창조과학 세미나입니다. 한빛교회(담임목사 정수일)는 매년

마지막 주에 탐사여행을 참석하고 있는데 이번이 벌써 7년 째입니다. 이번에는 예년에 Grand Canyon을 갔었던 것과 달리 Bryce Canyon과 Zion Canyon을 중심으로 노아홍수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인랜드순복음 교회는 매년 송구영신예배(혹은 신년 기도회) 때면 창조과학 세미나를 갖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결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개의 주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이 4년 째입니다. 두 교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시작하며 창조주를 확인하는 것은 동일하게 창조과학선교회의 한 해 사역의 마무리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바인은누리교회 유소년 세미나

얼바인은누리교회(담임목사 박종길) 문화사역부의 1일 창조과학교실이 지난 1월 5일 약 80여 명의 2세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노아방주와 공룡을 주제로 최우성 지부장과 이재만 부회장이 각각 한 강의씩 맡았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궁금한 주제로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 성경의 사실성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임을 실감나게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이 더욱 많아져 성경이 사실이란 지식이 널리 전파 되기를 바랍니다.

중부지부 신년 기도모임

중부지부는 1월7일 시카고 레익뷰장로교회에서 신년 첫 기도모임을 가졌습니다. 레익뷰교회의 정영건 부목사님이 함께한 가운데 2008년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신 레익뷰 장로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2008년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사역들을 기대하며 기도드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올 해 예정되어 있는 중부지부의 사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부지부 신년기도회



- 1) 시카고 헬로쉽교회 젊은 커플을 위한 5주 주일 창조과학특강 (1/13-2/10)

2) 시카고 교회 제 3 차 그랜드캐년 창조과학탐사여행 모집(3/24-3/27)

3) 창조과학학교 (6기) 시카고한인교회 (담임목사 서창권): 4/14-6/23

중부지부 연락처: 630-400-6114

김무현 남부지부장, <성경적 세계관과 창조> 시리즈 발간

최근 출판사 <말씀과 만남>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정-직장-문화 구하기”가 발간 되어 4권의 ‘성경적 세계관과 창조’ 시리즈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과 창조] 성경 공부 교재는 성경과 세계관과 삶의 통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자 하는 이 땅의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고, 각자 자신의 달란트에 맞는 소명과 열정을 찾아내어, 특정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저자의 책 소개 중 일부). 이 시리즈는, 1권: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2권: 성경적 창조관 세우기(창세기 믿어 말어?), 3권: 세속적 세계관 부수기, 4권: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정-직장-문화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4면을 참고하세요).

간사 모집과 새 웹사이트

1월 현재 전임 행정간사를 찾는 중에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가 도착 될 즈음에는 아마 결정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또한 창조과학선교회의 새 웹 페이지가 선을 보였습니다. 아직도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찾아 보실

새로 단장한
창조과학회
웹사이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간사님과 웹페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실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 기도 제목

미국창조과학회(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는 최근 샌디에고에서
텍사스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1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가지고
있던 석사과정의 프로그램을 텍사스에서도 등록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
다. 지금까지 텍사스 고등교육 위원회(THECB)의 두 단계의 현장 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어 대학원 과정이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 되었지만 최근 세
속적인 학계와 언론이 등록을 막기 위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문에 오는 4월에 위원회 모임에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
습니다. 텍사스는 미국의 다른 주들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THECB 커미셔너인 Dr. Raymund Paredes가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ICR은 다른 학교들과 똑 같은 내용의 실험과학을 가
르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2. 우리들이 은혜롭고 진실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3. 서류들이 잘 준비되어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학원 과정을 승인할 수 있
도록
4. Dr. Raymund Paredes가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성원하는 편지를 받게
될 때에 진화론을 반대하고 우리 가르침을 지지하는 많은 지식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제 4 차

유학생 창조과학탐사여행

성경을 읽고 듣기만 하던 위치를 벗어나, 의문점에 대하여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죄에 대한 단호하심을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인 틀로만 생각했던 것들과 성경을 읽고 오해할만한 일들이 확실히 깨어지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여행을 가능케 하신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김대명, 라스베가스 영광장로교회

우리는 답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열쇠로 삼기를 원합니다. 조원화, 라스베가스 영광 장로교회

모태신앙으로 오랜 동안 교회생활을 했음에도 늘 막연한 믿음생활이었는데, 탐사여행을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희나, 라스베가스 영광장로교회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분명한 증거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스베가스 영광장로교회

지금까지 얼마나 진화론에 익숙해있었는지 스스로 놀랐습니다. 탐사여행을 통해 학교교육과 세상이 얼마나 진화론에 익숙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박영욱, 라스베가스 영광장로교회

성경을 읽으면서 문득문득 들던 의문점들을 죄악시하며 무시하려고만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런 문제점들이 명쾌하게 해결된 느낌입니다. 퍼듀 한인장로교회

Computer science 박사과정 학생으로 Research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왔었습니다. 이번 여행 중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성경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퍼듀 한인장로교회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고 있던 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진화론적 생각에 의한 추측이라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김수진, 랜싱 연합감리교회

진화론은 그냥 과학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창조론에 대적되는 이론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확고한 창조론적 사고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다. 김승연, 새소망 침례교회

UFO같은 미스터리한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많은 것들이 진화론적 패러다임에 기인한 결과임을 깨닫고 그 틀을 깰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전용진, 유타 대학총교회

짧은 여정, 바쁜 일정 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은목, 로렌스 한인 장로교회

첫 시간에 “성경이 사실이기에 믿는다”란 선교사님 말씀이 잘 믿기지 않았었는데 여행 동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충격도 받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김성민, 인디웨스트 한인교회

특히 홍수 이전 층과 홍수 층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하셨음을 확실히 보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현, 임마누엘 선교교회

제가 감동받은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필요하시다는 말입니다. 김두현, 영광장로교회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온누리교회께 감사드립니다. 김병남, 유니버시티 교회

지층과 화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깨달음, 배움의 대상이 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임동의, 앤아버 감리교회

창조과학회의 활동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많이 쓰임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천경숙, 테로홀 장로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를 통해 얻게 된 이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현주, 테로홀 장로교회

“Boat”가 아니라 아무리 거세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노아 “box”이신 주님, 그리고 과학을 제대로 모르는 저에게 성경이라는 “정답”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정현진, 유타 대학촌 교회

저희 가정에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말씀에 가슴 뜨거워졌습니다. 유지혜, 한국

지식을 넓히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공부하겠습니다. 남혜림, 유타 대학촌 교회

성경을 믿는다는 그 당연한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창조론 뿐 아니라 성경전체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혜선, 유타 대학촌 교회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하나님 없는 연구는 결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유혜림, 유니버시티 교회

● 더 자세한 간증은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완벽한 대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창16)

첫째 날 만드신 물로 구성된 지구(watery earth)를 꾸미고 계시는 모습이다. “궁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raquya(라카야)인데 영어로는 firmament 또는 expanse 등으로 번역되었으며 넓게 퍼진 공간을 의미한다. 기록된 그대로 보자면 첫째 날의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 둘로 나누시는데 바로 궁창이라는 것으로 나눈 것이다.

창조 주간 동안 궁창은 3일에 걸쳐 언급되는데 둘째, 넷째, 다섯째 날이다. 이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 궁창은 물을 둘로 나누시는 둘째 날의 궁창(a firmament in midst of the waters)이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있게 하신 하늘의 궁창(the firmament of the heaven)이다. 다섯

째 날은 새가 나는 땅 위 하늘의 궁창(above the earth in the open firmament of heaven)이다. 그 표현된 그대로 따르자면 둘째 날의 궁창과 다섯째 날의 궁창은 같은 오늘날의 대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넷째 날의 궁창은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의 공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별들이나 새들이 있는 곳에 동일한 “하늘”을 사용했다. 우리



이재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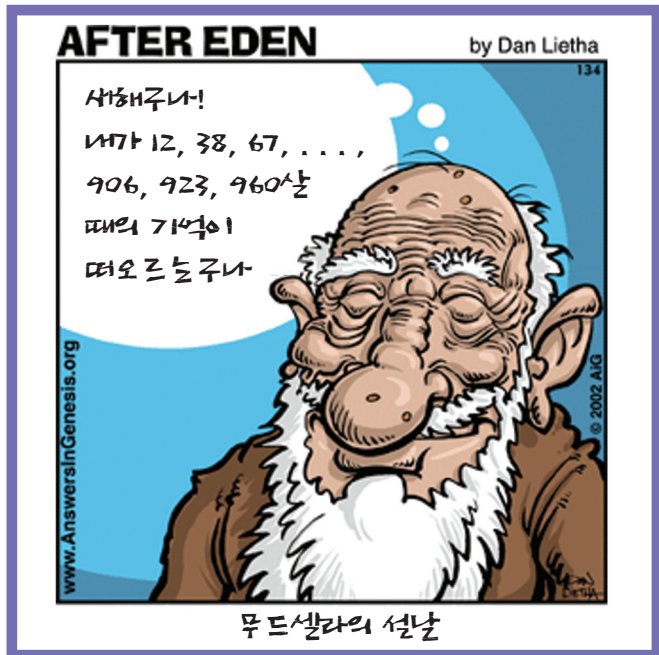
창조과학
선교회
부회장

나라 말에도 “하늘을 나는 새”와 “하늘의 별들”의 표현처럼 같은 하늘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 어쨌든 궁창이란 말은 “넓게 퍼진 공간”을 충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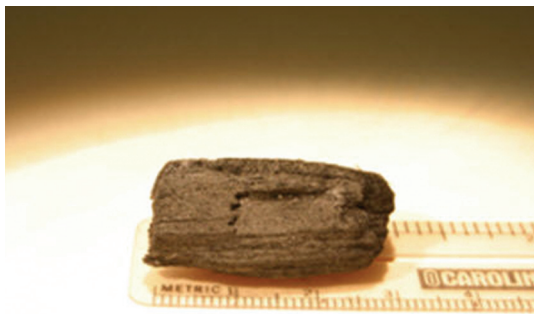
순수한 건조대기는 질소 78%, 산소 21%, 기타 1%가 일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으며 지표에서 지상 80km까지 특별한 성분을 제외하고는 그 비율이 거의 일정하다. 대기 중에 가장 풍부한 기체인 질소는 모든 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의 공급원이다. 질소는 식물에게 다량이 필요하여 토양 자체만으로는 그 양이 충분치 않다. 그러므로 가뭄이 오래 지속될 경우 수분자체의 부족과 함께 질소의 부족이 심각하게 뒤따른다. 비가 온 후에 식물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이유는 물과 함께 비를 통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공급받기 때문이다. 특히 번개가 칠 때 발생하는 고온은 질소를 화학적 반응시켜 질산염으로 전환시키고 비로 인해 식물에게 제공된다. 이 벼락이나 번개에서 힌트를 얻어 인공적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하여 만든 것이 바로 질소비료인 것이다. 읍기에 보면 “그가 번개 빛으로..... 식물을 풍부히(in abundant) 주시느니라(36:30-31)”란 엘리후의 말은 번개가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놀라운 표현이다.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절대적이다. 산소가 없으면 물론 생물이 살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산소 양이 지금보다 더 많으면 좋을 듯 하지만, 그럴 경우 불이 너무 잘 붙게 된다. 또 일단 불이 나면 소화하기도 어려워 지구는 곧 불바다로 변할 것이다. 이렇듯 불안한 산소와 산소 사이에 풍부한 질소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정한 대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산소의 양이 지금보다 적어지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므로 불을 붙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장 호흡이 힘들어진다.

대기의 완전함을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다. 대기의 조성을 보더라도 창조과정 가운데 시간이 들어갈 틈이 없다. 진화론자들의 생각은 조화롭지 못했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조화로운 지금의 대기로 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전능한 창조자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큰 믿음이 필요하다. 대기는 처음부터 완전해야 되며 이 완전성은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롬 1:20)만을 보여준다.



금광에서 발견된 “고대”의 화석화된 나무



금광에서 발견된 나무 화석

19 47년 7월 미국 콜로라도 Cripple Creek에 있는 Cresson 금광의 지하 510 m에서 탄화된 나무화석이 발견 되었다. 이 탄화된 나무 조각은 약 3 cm 정도로 화산재와 자갈이 포함된 사암층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방사성 동위원소 Argon으로 연대 측정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나무 조각은 3200만년 전 화

산 폭발할 당시에 묻힌 셈이다. 고대의 나무 조각이 금광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미 많은 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생명체를 구성했던 방사성탄소(C14)는 불안정한 원소로서 안정한 원소인 질소(N14)가 되어 공기중으로 사라지게 된다. 현재 생명체에 존재했던 C14의 절반이 N14로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 부르는데 약 5730년이다. 또 5730년이 지나면, 즉 반감기가 두 번 지나게 되면 생명체에 있던 C14는 원래의 반의 반 즉 4분의 1로 줄어 든다.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C14의 양은 줄어들게 되는데 약 8~10만년이 지나면 남아 있는 C14의 양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적어지므로 더 이상 방사성탄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방사성탄소를 사용한 연대 측정의 한계는 최대 10만년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소개한 3200만년 전 화산 폭발 당시에 금광에 묻힌 나무 조각에는, 만약 3200만년이 사실이라면, 방사성 탄소가 남아 있을 수 없다.

창조과학자인 Andrew Snelling 박사는 최근에 이 “고대”의 나무 조각을 첨단 설비를 갖춘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Iso Trace Radiocarbon Laboratory에 보내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C14의 비율을 AMS 시스템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이 나무 조각이 현재 C14/ C12 비율의 $0.588 \pm 0.069\%$ 였다. 이 수치는 실험 오차를 제외한 것으로 순전히 그 나무 조각이 화산 폭발 당시 묻힐 때 나무에 있었던 C14의 남아 있는 양으로서 이 C14 비율은 이 나무가 $41,260 \pm 540$ 년 전 것으로 계산이 되었다.

이 분석 결과는 그 나무를 포함하고 있는 암석이 3200만년이란 기존의 연대 측정 방법이 엄청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암석의 연대 측정방법이 믿을만하지 않은 이유



콜로라도 Cripple Creek의 금광 모습

는 방사성동위원소 연대측정을 위한 가정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인데, 그 가정들 중의 하나는 변함없는 반감기를 사실로 믿는 것이다. 방사성 동위원소들의 반감기가 지구의 지질 역사를 통하여 일정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은 RATE(Radioisotope and the Age of The Earth) project 결과로서 이미 학회에 보고 되었다(2003년 National Geophysics Union Conference). 또한, RATE project 결과에 의하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지층에서 수집한 석탄은 세속적인 C14 방법으로 계산 할 때 48,000 – 50,000년이었고 C14의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노아홍수 시절에 매장된 것으로 계산이 되었다. 따라서 Cresson 금광에 묻힌 이 나무 조각은 노아홍수 기간이나 그 이후에 즉 4,300년 전 것이란 결론이 나온다. 또한 이 금광의 금맥도 이 때 형성된 것이란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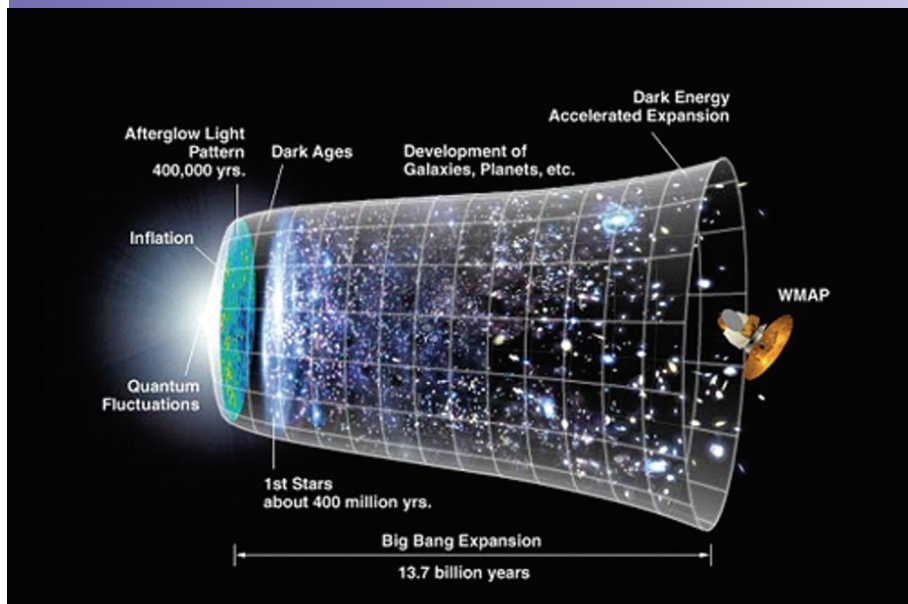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사성탄소 동위원소를 사용한 연대측정 자체도 믿을 수 없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 가정은 과거 수 천년 전의 나무에도 지금과 동일한 양의 C14이 존재했을 것이라 가정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다음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하나는 노아 홍수가 생태계의 거의 모든 탄소를 땅에 매장시켜버렸기 때문이다. 즉 현재는 생태계의 탄소 농도가 과거에 비해 극미량(약 1%)만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주선에 의해 생성된 C14의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과거 즉 노아 홍수 당시에는 지구의 자기장의 세기가 훨씬 강했을 것이므로 대기에 도달하는 우주선의 양이 훨씬 적었을 것이고 생성된 C14의 양이 현재보다 적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들을 고려한다면 “고대” 화석화된 나무 시료로 측정된 방사성 탄소의 비율은 성경적인 지구 역사의 시간에 잘 들어맞게 될 것이다.

정보근원 : ACTs & FACTs, Jan. 2008, pp. 10-13

정리 : 최우성



최우성
서부지부장,
생리학박사



빅뱅론의 우주 탄생 과정 상상도(thetriplehelix.org)

우주는 무에서 시작

과거에는 “무”에 대하여 생각할 때 물질만을 고려하였었다. 따라서 물질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였었다. 그러나 1905년 아인슈타인 (Albert Einstein 1879-1955)의 특수상대성이론과 그리고 1916년 일반상대성이론이 등장함으로써 이전의 고전적 시공간개념은 크게 바뀌었다. 우주론에서는 상대성이론을 통해서 물질-공간-시간의 연속체 개념이 도입되었고, 절대시간, 절대공간의 개념들은 상대시간, 상대공간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므로 물질만 고려하던 종래 무의 개념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으며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 모두가 없는 절대 무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성경은 태초에 우주 만물이 무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다. 우주가 절대 무에서 창조되었다는 창조 진리를 말하고 있는 서적은 오직 성경 뿐이다. 세계 도처에 많은 천지창조의 신화가 있지만 이들 신화에는 모두 한결같이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그보다 앞선 물질이 존재하고 있다. 즉 신화는 모두 천지 창조에 우선하는 물질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원초적인

물질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나? 성경의 창세기 기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는 시간과 하늘과 땅의 창조가 최초임을 나타내며 그보다 앞선 어떤 원초적 물질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은 절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가 존재하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

진화론자들은 생명은 물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연히 생기게 되었다는 자연발생설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생명을 시작하게 한 물질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에 대한 설명은 없다. 진화론에 바탕을 둔 천문학자들은 빅뱅(Big Bang)이론으로 우주의 생성을 설명한다. 즉 우주는 최초로 빅뱅이라고 하는 대 폭발과 함께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 팽창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설에 따르면 우리의 우주는 약 130-180억 년 전에 폭발로 생기게 된 것으로 본다.

빅뱅설이 나오기 이전에는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으며, 팽창도 수축도 없는 소위 말하는 정상우주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빅뱅설은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우주는 분명히 시작이 있다는 것이다. 초기의 빅뱅이론에서는 최초의 대 폭발에 근거가 되는 매우 작게 응집된 물질(Cosmic egg)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후기에는 우주의 시초가 그 같은 결집된 고온 고밀도의 물질이 아니라 오히려 무에서 우주가 생겼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무라는 것은 물리학의 양자론에서 말하는 무인데 양자론을 피력하지 않고서 자세한 것을 말할 수 없겠지만 간단히 언급하자면 우주가 처음 생길 때 물질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즉 우주가 “양자역학적 진공 속의 진동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빅뱅이론은 현대 물리학 안에서도 모순점이 많다.

인간의 불완전한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의 지혜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의 위대하고 장엄하며 깊은 우주 창조의 계획과 뜻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성경은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특성은 피조물인 자연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듯이(롬1:20) 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그의 위대한 계획으로 창조된 것이다. 따라서 피조된 인간으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또 믿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동용
중부지부장
항공기계
공학박사

[성경적 세계관과 창조] 시리즈

이번 호 뉴스란에 소개된 바와 같이 남부지부의 김무현 지부장은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정-직장-문화 구하기”라는 제목의 신간을 냄으로써 [성경적 세계관과 창조] 시리즈를 완간하였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과 창조] 성경 공부 교재는 성경과 세계관과 삶의 통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자 하는 이 땅의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고, 각자 자신의 달란트에 맞는 소명과 열정을 찾아내어, 특정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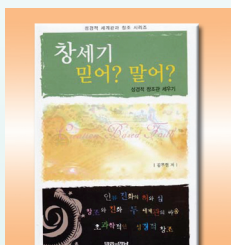
성경적 세계관/창조신앙은 철학적 담론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사고하고 살아가겠다는 신앙 그 자체입니다. 신앙인의 삶 그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항상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 는 오히려 성경적 세계관과 창조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심취해 보지 않은 크리스천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전 사고 체계와 삶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가치관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기계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적 세계관과 창조’ 시리즈는 열 분의 목사/신학자/교수/선교사의 추천과 함께 다음과 같이 4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출판사: 말씀과 만남)



1권 |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창조-타락-구속을 중심으로 한 성경적 세계관 소개 및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참 계시임을 변증하고, 예언과 그 성취를 통해서 살펴보면,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일관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권 | 성경적 창조관 세우기(창세기 믿어 말어?)

창조와 진화가 종교와 과학의 논쟁이 아닌 두 상반된 세계관의 싸움임을 인식하고, 과학적 가설/추론에 불과한 진화론이 넘을 수 없는 수많은 장벽들을 밝히며, 성경적 창조를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자료들과, 창세기가 비과학적인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이며 초과학적인 창조주의 계시임을 설파하고 있다.



3권 | 세속적 세계관 부수기

진화론적 인본주의나 다른 세속적 세계관들이 현시대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또한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반성경적 사조들과 사회-윤리적 문제들, 제도적 모순들,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경적 대안들을 성경을 기준으로 조명하고 있다.



4권 |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정-직장-문화 구하기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직장-문화가 하나님의 창조원리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지고 왜곡되어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인가? 성경적 세계관과 창조신앙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결혼, 가정, 자녀교육, 직장, 상사, 리더십, 술, 재물, 문화 등 삶에서 부딪치는 중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사역일정

2008년

2/4-6 빙하시대 탐사여행(새시대 목회자, 이재만, 최우성, 404-944-1872)
 2/8-10 임페리얼 한인교회(세미나, 이재만, 760-679-6348), CA
 2/22-24 앤아버 장로교회(세미나, 이재만, 734-262-0824), MI

3/7-8 산돌교회(세미나, 이재만, 979-575-2778), Pine Brook, NJ
 3/9-11 임마누엘 교회(세미나, 이재만, 201-461-5055), Palisades Park, NJ
 3/12-14 천양교회(세미나, 이재만, 732-805-4050), Somerset, NJ
 3/15-16 뉴욕영광 장로교회(세미나, 이재만, 718-225-3021), Bayside, NY
 3/24-26 창조과학 탐사여행(시카고 교회연합 847-845-5368)

3/31-4/3 창조과학 탐사여행(형제교회, 중고등부 425-273-4545)
 4/7-9 창조과학 탐사여행(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858-717-0544)
 4/14-6/23 제6기 중부창조과학학교(시카고 한인교회 847-845-5368), IL
 4/14-17 창조과학 탐사여행(Living Word 침례교회 408-930-8349)
 4/25-27 한마음 침례교회(세미나, 이재만, 925-828-3219), CA
 4/28-5/1 창조과학 탐사여행(시애틀 형제교회, 425-488-1004)

5/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LA 열바인 온누리교회, 949-261-9100)
 5/24-26 창조과학 탐사여행(LA 온누리교회)

6/2-4 창조과학 탐사여행(주님의영광교회)
 6/9-11 창조과학 탐사여행(시애틀 형제교회 Conference 목회자)
 6/16-18 창조과학 탐사여행(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858-717-0544)
 6/23-26 창조과학 탐사여행(동양선교회)

7/1-5 창조과학 탐사여행(애틀란타 새한장로교회 404-509-8358)

8/4-6 5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213-381-1390)
 8/8-10 창조과학 탐사여행(LA 온누리교회)
 8/18-23 창조과학 탐사여행(House of Siloam, 일본인, 951-245-9500)
 8/30-9/1 창조과학 탐사여행(월셔/열바인/샌디에고 온누리교회)

9/29-10/1 창조과학 탐사여행(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10/6-8 창조과학 탐사여행(아버지학교 국제 컨퍼런스)

후 원 |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
 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